

전남 화순탄광, 120년 만에 문 닫는다...정부, 보상금 2.3억 지급

이달 30일 폐광...10일 특별위로금 신청·11일 지급 동면에 위치...1905년 4월 개인에 의해 광업권 등록

화순탄광이 문을 연 지 약 120년 만인 오는 30일 폐광된다. 정부는 화순탄광을 운영해온 대한석탄공사에 폐광대책비 약 2억3000만원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5년 안에 전국 공영탄광을 모두 폐광시키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남 화순탄광의 문을 닫는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폐광에 따라 오는 10월 특별위로금 신청을 받은 뒤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 화순군 동면에 위치한 화순탄광은 지난 1905년 4월 이를 발견한 개인에 의해 광업권이 등록됐다. 지난 1934년 6월 일본인이 이를 매수했으며, 남산탄광과 중연광업이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현재 운영 중인 석탄공사가 창립된 것은 1950년이지만, 광업권 등록부터 따지면 100년 넘는 역사를 지녔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폐광이 되면 산업부에서 석탄광업자에 지급하는 폐광대책비는 연

간 석탄생산량에 따라 다르다. 30만(톤) 이상인 경우 8000원, 30만 미만일 경우 1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2만3000t이 생산되는 화순탄광을 운영해온 석탄공사에 산업부는 2억30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폐광으로 직장을 잃는 탄광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주어진다. 탄광 근로자는 해마다 감소세다. 지난 2016년(246명) 대비 절반 넘게 줄었지만 지난해 기준 여전히 101명이 근무 중이다.

산업부는 폐광 이후에도 이들이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업준비금은 근무 기간이 3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평균 임금의 5개월 분을, 그로부터 1년 씩 늘어날수록 1개월 씩 추가 지급한다.

7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2개월 분이 주어진다. 단 정년 퇴직 후 재고용됐거나 정년이 연장된 사람은 제외된다. 특별위로금은 근무 1

개월 당 평균 임금의 0.186개월 분이다. 주거 공간이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연탄보타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 연탄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가 발표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르면 전체 석탄 수요는 이 같은 이유로 발전용 석탄 수요 확대에도 매년 감소세다. 지난 2016년 126만t이던 연탄 수요는 2018년에는 100만t 아래로 떨어졌다. 2025년에는 30만t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연탄 수요 감소에 따라 오는 2030년이면 자연적으로 폐광되겠지만, 산업부는 국가 재정 절감과 탄광 근로자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인위적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탄은 대표적인 서민 품목이다 보니, 생산 원가가 오르더라도 판매가를 시장원리에 따라 올릴 수 없도록 규제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투입해 연탄 가격 인상을 억제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석탄 산업 재정 지원에 2835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에는 태백 장성탄광,



화순탄광이 활황을 이루던 시기의 모습 (사진=화순군 제공)

2025년에는 삼척 도계탄광 순으로 석탄공사가 운영·유지하는 남아있는 공영탄광을 모두 문 닫는다. 계획대로 조기폐광이 진행된다면 2025년 이후 국내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삼척 경동 폐광 단 한 곳만 남고 모두 사라지게 된다.

산업부는 조기폐광을 결정하면, 그 기간 동안 탄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약 1조원 가량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추진

7월 13일까지 총 7회 걸쳐 진행

곡성군이 지난 1일 '우리 쌀의 무한한 변신'이라는 주제로 쌀 활용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7월 1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쌀 소금, 쌀 요구르트, 라이스페이퍼만두, 쌀껍게이크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디저트를 만들게 된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가에 위안이 되길 바란다. 실생활에서도 쌀 요리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했으니 수강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담양군, 지역맞춤형 농업통계자료 생산 위한 농업실태조사 실시

이달 28일까지...표본농업인 1,008명 대상

담양군은 이달 28일까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담양군 농업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20년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담양군의 농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농업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 최초 '담양군 농업실태조사'를 개발했으며, 3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관내 표본 농업인 1,008명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4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작물별 재배면적, 경지면적, 농업 활성화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담양=박종영기자

"공무원도 챗GPT 활용해요" 구례군, 정보화 교육 실시

전산교육장에서 공무원 정보화 교육 4개 과정 4일간 추진



구례군은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군 전산 교육장에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4일간 정보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미국 오픈AI가 공개한 챗GP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직원들이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고 챗GPT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구례군 공무원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